

현대인 마음치유 미술 만다라가 뜬다

템플스테이, 동국대 평생교육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요즘 색칠하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대형 서점에는 컬러링북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이며, 카페나 도서관에서는 컬러링북에 색칠하기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직장인 최수진(33·여)씨는 컬러링북을 서점에서 구입해 잠자리모양의 그림에 색연필 하나하나 바귀가며 색을 칠한다. 그녀는 때보다도 진지하게 색칠하기에 몰두한다.

최 씨는 "컬러링북을 구입해 시간 날 때 색칠하고 있다"며 "색칠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은 물론 그날 힘든 일도 잊게 되는 것 같아 자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줘 대중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컬러링북 색칠하기는 불교의 '만다라'에서 유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다라'는 고대인도 산스크리트어로 '원(圓)'을 뜻하며 예로부터 복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그림으로 여겨졌다. 현대에 와서 정신의학자인 '칼 융'에 의해 만다라를 통한 치유의 힘이 재발견돼 심리치료에 적용됐다. 현대에서도 만다라를 색칠하거나 그리는 등의 미술치료는 이미 명상과 심리치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불교계에서는 이러한 만다라를 비롯한 단청 채색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1층에서는 매

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컬러링 매디테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세라믹으로 만든 사찰모형과 동자승, 탑 색칠하기를 비롯해 단청손수건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하다. 최근 컬러링이 마음치유에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방문객 수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템플스테이 채색체험을 담당하는 태허스님은 "컬러링 매디테이션은 참가자들이 세라믹 토이와 단청이 그려진 손수건에 색칠을 하면서 마음을 집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마음이 들뜨거나 번뇌가 생길

**컬러링...만다라에서 유래
칼 융이 심리치료에 적용
스트레스완화·정신안정 도움**

때 색칠을 하면 기분이 전환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체험"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만다라미술심리연구원(원장 김영옥)은 산하에 마음자리 그림심센터와 마음자리 미술관 등을 운영한다. 마음자리 그림심센터에서는 '마그마힐링'이라는 만다라 미술심리치료에 기반한 치유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마음자리 미술관은 예약 방문으로 작품관람을 하고 만다라 일일체험 및 만다라 워크북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다.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1층에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컬러링 매디테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세라믹으로 만든 사찰모형과 동자승, 탑 색칠하기를 비롯해 단청손수건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하다.

김영옥 원장은 마음이 복잡하거나 지쳤을 때 만다라를 감상하며 직접 그려보고 색칠하는 것을 추천한다. 김 원장은 "만다라를 그리고 색칠하는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밝아진다. 보이지 않았던 길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는 끊임없는 집중과 몰입이 필요하다"며 "만다라를 그리며 강한 에너지를 집중할 때 마음의 갈등과 분열된 정신이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불교종중지중 중앙교육원은 지난해 4월부터 '만다라정소년능력개발원'을 설립하고 서울시에 초·중·고 1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동국대 평생교육원도 '만다라채색심리상담전문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3월부터 15주간 만다라심리상담 이론·실습 교육

을 실시한다. 부산 동아대 평생교육원도 '만다라미술심리지도자과정'을 열고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해피만다라를 통해 대중들에게 행복한 만다라를 알리려 동휘 스님(홍천 여래사 주지)은 종로구 인사동에 해피만다라 문화원을 운영 중이다. 해피만다라문화원은 만다라법륜대학교 금강대법연무관 등의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열린다. 특히, 만다라법륜대학교는 동휘 스님의 해피만다라이야기 법문강의와 지도, 만다라 수행속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며, 반아심경 등 불교경전 강의를 진행한다.

이밖에 주요 사찰에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에서는 소금만다라, 만다라 그리기, 단청 칠하기 등 다양한 색칠활동이 마련돼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개신교의 종교배타성 갈수록 '심각'

한국갤럽, '2014년 한국인의 종교의식' 2차 자료서 드러나

개신교인들의 다른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갤럽은 2월 4일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2) 종교의식>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종교인 중 불자와 천주교 신자들은 각각 79%가 "다른 종교의 교리도 비슷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개신교인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49%만이 이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개신교의 경우 1984년부터 매년 배타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개신교인의 이웃종교 진리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1997년 62%에서 2004년 53%, 2014년 49%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최근 늘어나는 이웃종교 편협 행위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개신교인은 비종교인의 구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교인, 천주교, 비종교인의 70%대에 비해 모자란 36%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표했다.

한편, 이번 자료에서 불자들은 종교별 초자연적 개념에 대한 긍정률 답변에서 절대자(44%), 극락(51%), 영혼(55%), 기적(57%), 귀신(48%)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위 기복적 요소에 대한 긍정률 답변 중 절대자(84년 57%·97년 45%·2004년 37%, 극락(84년 44%·97년 43%·2004년 36%) 등은 감소추세였지만 2014년 대폭 늘었으며, 귀신(84년 38%·97년 55%·2004년 44%), 영혼(84년 53%·97년 54%·2004년 51%) 등은 2014년 IMF 당시인 9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증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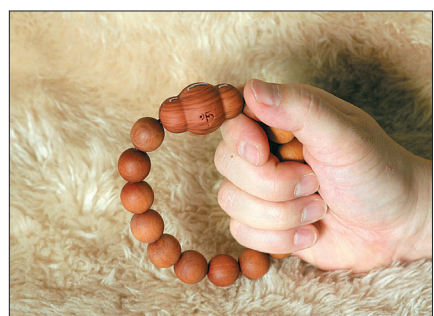
감성 IT기술, 찬불가·독경 재생 영주 출시

감성과 IT기술이 접목된 디지털그형 '염불단주'가 개발됐다.

경희대 관광대학원 안경모 교수가 제작한 '염불단주'는 모주(母珠)를 누르면 박범훈 교수가 작곡한 찬불가와 화암 스님의 독경이 나오도록 제작된 영주다.

'염불단주'는 기혈을 소통시켜 심신안정과 정신집중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침향목으로 제작됐다. 화암 스님(경기도 포천시 동화사 주지)의 '천수경, 관음경, 반야심경' 등과 불교음악 작곡가 박범훈(중앙대 명예교수)의 '찬미의 나라, 탑돌이' 음원이 내장돼 있다.

안 교수는 "영주를 들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 스님의 독경소리와 찬불가를 듣고 수행정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



경희대 안경모 교수가 제작한 염불단주. 모주를 누르면 찬불가와 독경이 재생된다.

었다"고 개발 이유를 설명하며 "생각하는 구슬로 번뇌를 소멸한다는 의미를 지닌 영주를 통해 사회 갈등과 반목, 불신도 털어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배현진 기자

"불교 사회역할 키워 종단 발전방안 강구할 것"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여론조사·이슈보고서 발간 등 신년 계획 발표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불교의 사회적 역할 수립 근거가 될 일련의 주요 사업들을 전개, 내년 연구소 설립 5주년을 앞두고 관련 연구를 갈무리 한다. 이에 따라 두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 보고서 발간과 사회윤리교재 <불교사회> 초안을 완성할 예정이며 불교적 시각에서 바라본 사회 이슈 보고서도 3월에 걸쳐 발표된다.

불교사회연구소는 2월 5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연구소는 불교와 사회현실 진단을 통해 종단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2011년과 2014년 실시했던 '한국의 사회·정치 종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해 종교계 여론 변화 흐름을 짚고 이어 7월에는 타종교 현황

이 담긴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모두 불교계 변화방향을 모색하는 자료로 쓰인다.

법안 스님은 "불교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삼기 위해 조사결과를 축적, 올해 그 결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환경 등 사회의제에 대한 불교적 해석이 담긴 사회윤리교재 <불교사회>도 올해 말 초안이 완료된다. <불교사회>는 동국대, 승가대, 강원 등에서 출제가사를 막론하고 교재로 활용가능하다.

사회현안에 대해 종교계 참여가 높아지는 가운데 '불교적 시각으로 바라본 사회현상 보고서(가칭)'도 간이 형태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종단 핵심사업인 사부대중 100인공사에서 다뤄지는 의제와 종책 등도 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사찰예결산서 제출 실태 조사와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찰 재정투명성 실현을 위한 관련제도 정착 방향을 모색한다.

연구소가 얼마 전 사찰 양극화 해소법으로 제시한 교구 중심제에 대한 연구도 계속돼 11월에는 관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승가 간화선 수행체계 조사도 착수할 계획이며 불광연구원과 함께 초중고 사회교과서 불교 오류 검토 세미나를 6월 중 개최한다.

종단 행사에서의 일관된 의견 기준을 담은 보고서는 11월 공개 예정이다.

2011년부터 진행중인 호국불교 연구사업도 지속된다. 북한 보훈사에서의 서산대

사 남북합동 제향을 관련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며 자료집과 논문집 역시 계속 발간된다.

한편 연구소는 지난해 호국불교연구사업 결과물인 <한국 호국불교 자료집 3>과 호국불교사찰 자료집 <밀양 표충사表忠寺 표충사表忠祠>를 같은 날 공개했다. 표충사는 사명유정, 청허휴정, 기허영규 스님을 배향하고 있으며 올해는 갑사 표충원 편을 간행한다.

조선시대 여러 승장을 배출한 옥천사가 소장하고 있던 문서를 집중 발굴, 정리한 호국불교 자료집에서는 조선후기 승려는 역(役)의 의무가 없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군역(軍役), 역역(力役), 잡역(雜役) 등에 동원되며 국역(國役)의 주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실렸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불교인권위 사형제 폐지 촉구 발 벗고 나서

2월 5일 신년 계획... 국회의장, 각 당대표 면담 추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가 올해 사형제 폐지운동에 적극 나선다.

인권위는 2월 5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사람의 인권을 살리는 데서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다며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부처님께서는 일체 유정무정이 행복의 동반자라는 것을 통해 평등을 가르치고 있지만 현실은 차별과 억압으로 인해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혼자만 잘 살겠다는 개인적

아상이 확대되면 독재가 되고 이는 곧 무자비한 폭력으로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불행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개인 인권 존중에 활동 초점을 맞춘 것으로 우선 사형제 폐지를 위해 국회의장과 각당 대표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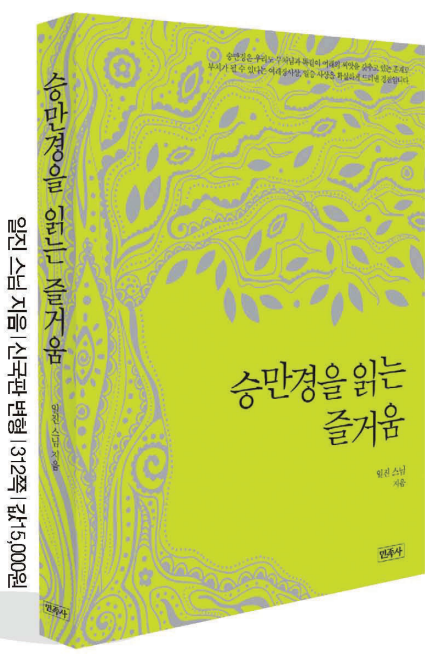
또 양심수에 편지, 그림, 경전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교도소 교화활동을 전개하며 제2차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이 투하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추모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신분 차별의 시대에 여성도 성불하고, 불가촉천민도 성불할 수 있다는 절대평등의 진리를 일깨워준 승만경!

'누구나 다 여래의 씨앗을 품고 있다'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여래장 사상! 운문사 일진 스님이 진진하고 섬세한 필치로 해석하는 그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해진다.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일진스님 강연 및 사인회 일정 안내

2월 21일 (토) 오전 11시 인천불교회관 (☎ 070.8821.9902)

3월 7일 (토) 오후 2시 부산 영광도서 (☎ 051.816.9500)

3월 15일 (일) 오후 1시 SETEC 불교박람회 1관 (☎ 02.2231.2011)



민중사 | 출판사 | 서울로 81 신원로파빌리온 1131호 |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